



201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결과보고서



소중한
 부부가 행복
 부모가 됩니다



소중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결과보고서

0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조사연구

저출생 원인과 과제에 관한 신혼부부 인식조사

07 조사 참여자 통계

08 결혼 결정과 결혼생활

1. 결혼 결정
결혼관과 자녀관 / 결혼을 결정한 이유
2. 부부갈등 요인과 해결방법
배우자와의 관계 / 부부갈등 요인 /
갈등 해결방법
3.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 /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출산과 육아

1. 현재 자녀 유무 및 향후 출산 계획
현재 자녀 유무 / 향후 출산 계획

2. 출산 결정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 출산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 출산과 가족의 의미

3. 가사와 육아의 어려움

가사 및 육아 분담 현황과 만족도 /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4. 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 및 기존 프로그램 평가

출산·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 /
신혼 부부 학교 참여 경험

37 요약 및 함의

42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의 기록

- 4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
그리고 또 10년
- 48 숫자로 보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 50 연도별 활동기록

80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 82 유한킴벌리
- 83 서울YWCA, 함께한 강사진

소통하는 부부행복학

201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결과보고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조사연구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조사 연구

저출생¹ 원인과 과제에 관한 신혼부부 인식조사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을 맞아, 신혼부부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8월 까지 이루어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1,28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와, 결혼 5년 이내의 남녀 11명을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조사 및 분석 기간

2018년 5월 ~ 8월
(약 4개월)

- 조사 설계 및 설문구성 : 2018년 5월~6월

- 설문조사 : 2018년 7월 2일~7월 5일

- 초점 집단 인터뷰 : 2018년 8월 3일~7일

조사대상

-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조사 참여자
설문조사		1,288명
		무자녀 여성 4명
초점 집단 인터뷰		유자녀 여성 3명
		무자녀·유자녀 남성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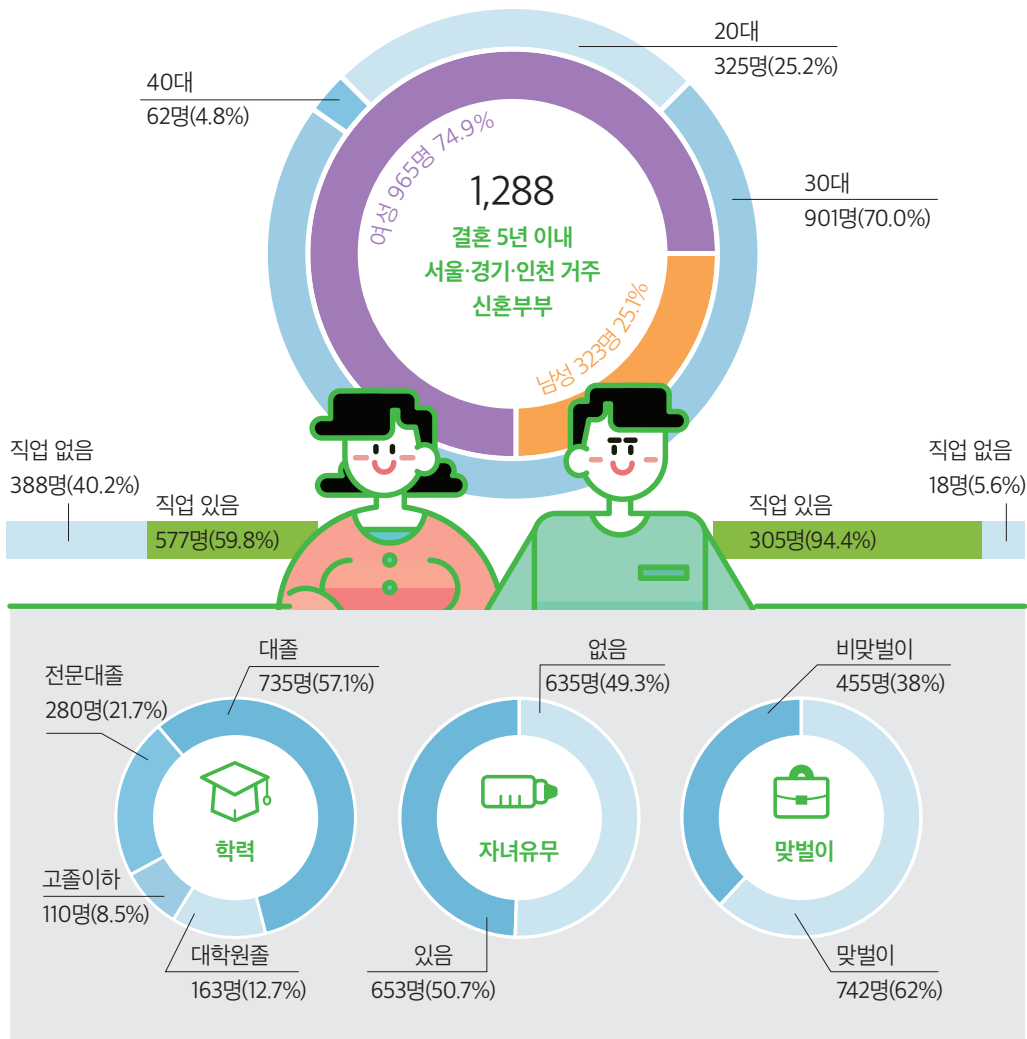
조사항목

조사 방법	조사 항목
설문조사	출산 및 양육 인식, 결혼관과 자녀관, 청소년기 원가족과의 관계, 현재 원가족과의 관계, 현재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가사 노동 및 육아 부담 현황,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 응답자 기본 사항
초점 집단 인터뷰(FGI)	신혼 부부 주요 갈등 요인, 결혼 생활 만족도 요인, 임신 및 출산 요인,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부 생활의 변화,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

1 아기를 적게 낳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에 포함되어 있는 '낳을 산(産)'에는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대신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I. 조사 참여자 통계

설문조사 참여자 : 결혼 5년 이내 서울·경기·인천 거주 신혼부부 1,288명



초점집단인터뷰(FGI) 참여자 : 결혼 5년 이내 서울·경기·인천 거주 신혼부부 11명



그룹1
무자녀 여성 4명
A / B / C / D



그룹2
유자녀 여성 3명
E / F / G



그룹3
무자녀·유자녀 남성
4명 H / I / J / K

II. 결혼 결정과 결혼 생활

1. 결혼 결정

결혼관과 자녀관

신혼부부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혈육으로 이어진 부모-자녀 간 관계나 “정상가족” 유지와 관련한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 또한 낮았다. 한편, 여성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20%대에 그친 반면 남성의 경우 약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빠도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면 안된다’ 항목의 남녀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관과 자녀관, 가족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이처럼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에 대한 신혼부부의 인식은 전통적 통념을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 정상 가족의 유지를 생애에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방식은 실제 신혼부부의 욕구 및 인식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결혼관과 자녀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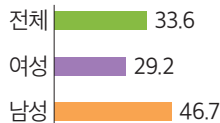
전체 ■

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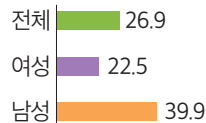
남성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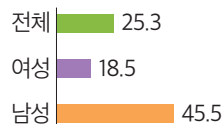
결혼을 하면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혈육관계가 아니어도 된다



부부사이가 나빠도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결정한 이유

FGI 결과, 최근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결정한 주된 이유로, 자신의 의지로 '가족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결혼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꼽았다.



D 막상 하고나니까 좋더라고요.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없어서 평화가 오고, 집안 살림도 스스로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활력소가 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J 저는 수도권에서 살아서 원래 살던 집에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부모님과 살면서 이래저래 제약이 많았어요...그래서 저나 아내나 독립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H 결혼하니까 가족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족이 많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첫째, '가족관계의 재구성'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결정·통제하는 것과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들 수 있다. D씨와 J씨의 경우 결혼 전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생활의 제약이 있어 이전부터 독립을 원했지만 본가가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에는 독립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결혼은 독립하여 자신과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H씨의 경우 성장기에 화목하지 않았던 원가족의 분위기로 인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 자체에 대해 꺼려하기도 했으나 배우자의 대가족이면서도 화목한 분위기, 특히 배우자 부모님의 따뜻함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처가의 잦은 가족 행사를 챙기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일부 부담이 될지라도 현재까지도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고 나아가 자녀를 출산한 것까지 스스로 '잘 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리적 안정감을 결혼 이유로 꼽았던 참여자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들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생겼다는 점에 주목했던 반면 남성들은 배우자를 챙기거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답했다.



A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B 내 편이 생긴 것, 그리고 든든함이 좋고, 부수적으로는 안정감을 주는 게 좋아요.



K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챙길 사람이 생긴 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꼭 챙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게 결혼을 한 의미도 있고 좋았던 거 같아요.



I 저는 그냥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게 좋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도 결혼을 하니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참고 일하다보면 또 좋게 해결되고 그러다보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2. 부부갈등 요인과 해결방법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



배우자와 평소 대화를 많이 한다

89.4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즐긴다

86.3



배우자와 견해가 비슷하다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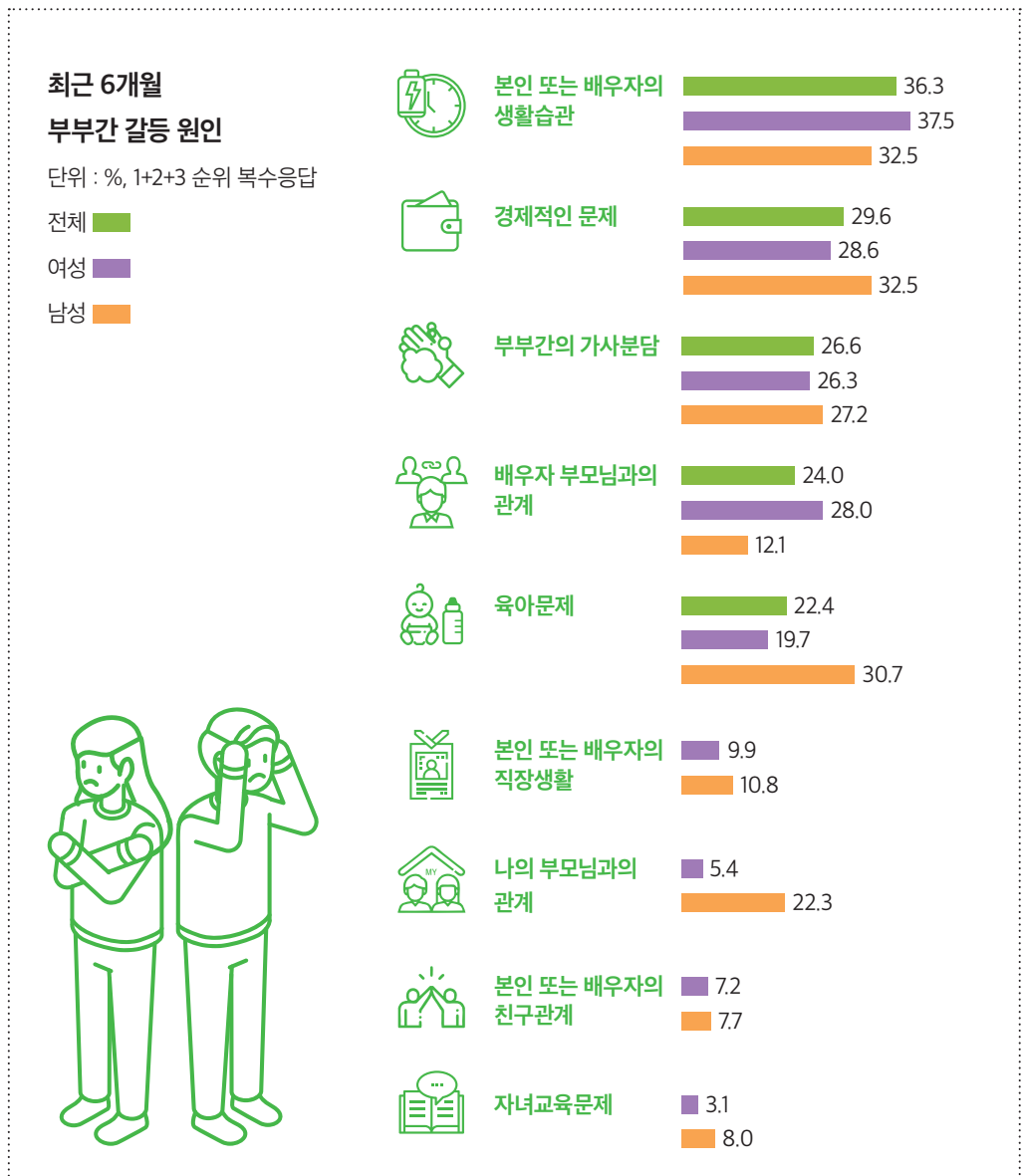
배우자를 신뢰한다

94.1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94.1%가 '배우자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신혼부부의 상당수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와 견해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77.7%로 다

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비맞벌이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여가를 즐기지 못하며, 배우자를 신뢰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결혼만족도 조사에서 유자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무자녀 신혼부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처럼 부부가 평소 대화와 여가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생김으로써 부부 중심의 대화 및 여가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부 갈등 요인



전체 응답자 중 67.2%가 지난 6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갈등 원인은 1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활 습관'(36.3%), 2위 '경제적인 문제'(29.6%), 3위 '부부간 가사분담'(26.6%), 4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24.0%), 5위 '육아 문제'(22.4%)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32.5%)와 '육아 문제'(30.7%)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 시가와의 관계로 인한 신혼 부부의 갈등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문제'(55.7%)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활 습관'(61.8%)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다.

FGI 결과에서는, 부부 당사자 간 관계에서의 요인과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요인으로 나누어 졌다. 이들의 갈등은 결혼 초기 별거로 이어지거나 이혼을 생각 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으며,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재고하거나 유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 초반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첫 번째는 생활이랑 문화차이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일로 힘들었다고 할까요. 두 번째는...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가 서로 참다가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자라온 환경이나 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J 서로 생활 패턴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다보니까...저랑 아내는 생활 스케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활 패턴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없던 일이 됐어요.



H 저는 아이 낳기 전에는 맞벌이였고 제가 먼저 퇴근을 먼저 해서 요리 빼고는 제가 다 했고요, 지금은 요리, 육아 빼고는 제가 다하고 있는데요...아이 낳기 전에는 내가 다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이 낳으니까 와이프가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감상으로 와이프가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당황했어요.

부부 당사자 간 관계로 인한 갈등은 결혼 이전에 각자 가졌던 생활패턴의 차이와 불공평한 가사일 분담이 갈등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가사분담이 되지 않을 때 갈등을 겪었다. 맞벌이 부부였더라도 임신·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쓰고 (일시적)외벌이가 되면서 육아는 엄마가 전담하게 되는 등 여성이 가정 내의 일을 더 많이 맡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 아내가 맡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보통'의 직장을 다니면

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D ...시댁, 시가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고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결혼하고 1년까지는 그런 문제들로 주로 싸웠죠...저희 친정에서도 남성위주의 문화를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집안의 차례문화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차례문화가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하는지 알면서도 결혼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A 저희 집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미리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편인데 시댁은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라 허물없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나 너네집 가고 있다' 갑자기 던지시고...그런 일이 잦다 보니까, 좀...저희가 시댁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형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만 전화해도 너무 많잖아요. 신랑의 역할이 중요한데 신랑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엄마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로 심각하게 부딪혀서 부부상담도 받았어요. 지금은 이해를 해주긴 하지만 진짜로 대한민국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를 신랑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F 저희는 없어요. 시댁이 멀기도 하고. 처음엔 전화를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네, 하고 안했거든요. 명절 때 만나는 일 말고는 딱히 없어요.



E 남편하고 갈등이 없으니까 시댁하고도 갈등이 없는 거 같아요.



G 저도 시댁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아주버님 계시는데 제가 불편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전혀 안하시고...시댁에서 배려를 해주시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시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의 잦은 연락,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명절에 수행하는 가사 노동, 남편의 원가족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시부모의 간섭 하에 힘들게 육아를 하는 가족 구성원을 보며 비출산을 결심하였다. 시가와 갈등을 겪은 여성들은 남편들이 한국사회에서 '시댁'과 '며느리'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고 토로하였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대체적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는 시가와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를 중재하고자 하는 남편의 노력, 본인과 남편과의 화목한 관계, 시가의 배려, 그리고 시가와'의 적절한(물리적·심리적)거리를 두고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전제되어 있었다.



J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H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저는 거기서 오히려 와이프에게 '어떻게 이런 부모님한테 당신이 나올 수 있지?' 라고 농담할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이예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딱 한 가지. 아들 가진 부모님이 주위에 하는 행동 있잖아요...이제 와서 전통적인 마인드로 아내를 대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저희가 원래 제사가 없는데 갑자기 결혼하니깐 어머니가 음식을 하겠다고 하시고...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시가와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 및 만족도, 그리고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처가'와의 갈등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H씨는 처가와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결혼 이후 본인의 어머니가 이전에는 하지 않던 제사를 챙기는 등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요약하면, '시가와와의 갈등'은 출산하지 않은 일부 여성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동시에 부부 간 주요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출산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와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시가와 며느리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는 남편의 노력 혹은 시가의 존중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는 결혼 이후 신혼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원가족들 역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등 해결 방법

FGI 참여자들은 부부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두 부부 간 대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았다. 이에 더하여 여성 참여자들은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등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²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부 갈등 해결 방법으로 부부 간 대화가 92.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인과의 상담(2.4%), 시간을 갖는다(1.5%), 부모나 형제자매와 상담(2.2%) 등이 나타났다.



D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일단은 둘 사이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하는 거 같아요. 물론 같이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있어야 어떤 일이 발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간 대화와 신뢰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여가 생활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함

생해도 합심해서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K 예전에는 (아내의) 고집에 맞춰주다가 한 번 크게 싸운 뒤로는 치졸하게라도 굴어서 지금은 대화로 풀려고 했어요.



I 결국 대화가 많이 중요한 거 같아요. 대화를 함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저는 본인이 마음을 달리 먹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등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은 신혼초기에 겪는 여러 갈등을 조율하는 데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거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부부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나 강연을 찾는 등 남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계 개선 방법을 찾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은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A 신랑의 역할이 중요한데 신랑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엄마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로 심각하게 부딪혀서 부부상담도 받았어요.



B ...크게 싸웠던 원인은 아파서 밤새 기침을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선생님이 말하기를 남편의 식구들이 건강한 편인지 물어보셨어요.

특히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나 강연을 통해 부부 간 갈등을 극복하였다는 사례를 보면, 상담 내용 자체가 가부장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인내'와 '이해' 등 감정 노동을 부과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A (민간 심리 상담에서) 제가 남편한테 애같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선생님께서 '남자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에서)

남자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남자는 혼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기를 세워주고 칭찬해줘야 한다고요. 남자는 채찍이 안 먹히고 무조건 당근요법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남자는 어린아이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여성들이 말할 때 무조건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공감능력이 없는 것을 이해해줘야 하는 것도 같아요. 육아도 애들이 아빠한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잖아요.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여자가 남자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신혼부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여가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와 갈등 해결 방법은 부부 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강화하거나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서 부부 간 갈등의 주요인으로 제시된 '생활 습관',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 가사 분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등은 단순히 개인 간 차이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부부가 오랜 시간 각자 놓여있던 관습과 문화, 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부간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부 구성원이 지닌 고정적인 성역할 태도, 가부장적 가족 문화 등을 전제로 한 가족 내 대화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부부 간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제공이 필요하다.

3. 결혼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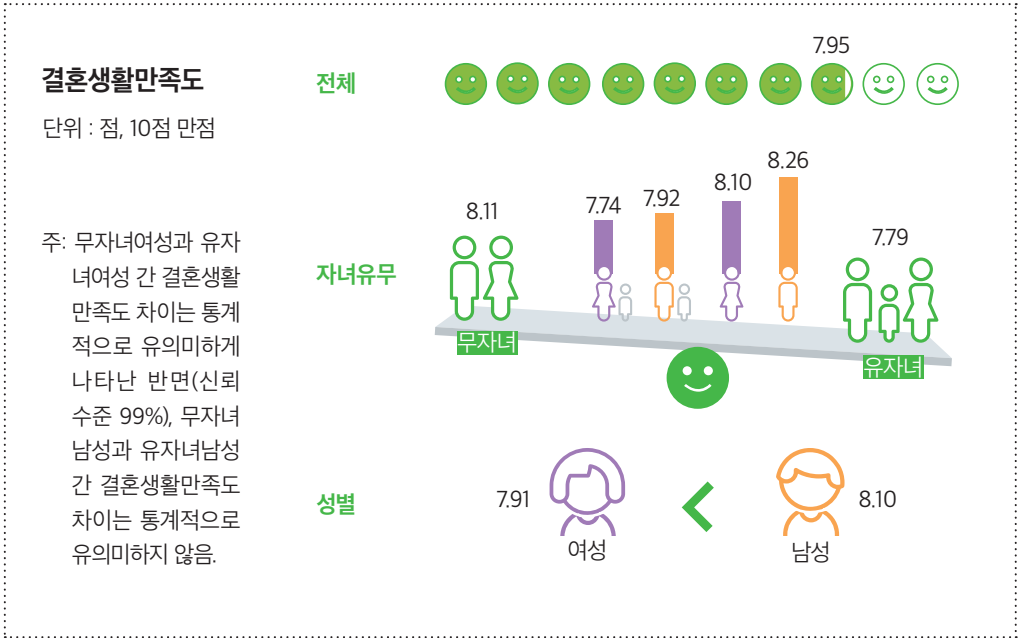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를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성별, 자녀 유무별로 나누어 봤을 때,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동시에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남성 역시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와 제약들이 남성보다 더 크게 가해지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 설문결과에서, 자녀가 있을 때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60%인 것으로 보아 불공평한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를 둘러싼 역할 분담이 유자녀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보다 유자녀인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보았을 때,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자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1) 소득, 2)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대화·여가·견해 비슷·신뢰), 3) 배우자 원가족으로 인한 부부 간 갈등, 4) 가사 노동 분담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월 소득 400-500만원 구간에서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수준이 무조건 높아질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의 결혼생활 만족에 일정정도의 가구소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와 평소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경우, 견해가 비슷한 경우, 배우자를 신뢰하는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부 간 소통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원가족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배우자 원가족과의 접촉 방식 및 빈도, 간섭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배우자 원가족과 관계의 거리를 두는 방식보다 배우자 원가족과의 문화 및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원가족과의 갈등이 부부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균등한 가사노동분담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간 가사 노동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하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 분담에 불만

족하는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낮았다. 그러나 여성은 본인의 주말 가사 노동시간이 길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반면, 남성은 아내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여성은 배우자의 원가족으로 인한 부부 간 갈등이 있는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지만, 남성은 본인의 원가족 혹은 배우자의 원가족으로 인한 부부 간 갈등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은 청소년기 부모님이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분담했을 경우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가사노동분담이 동등하다는 것은 부모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성평등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이와 불일치하면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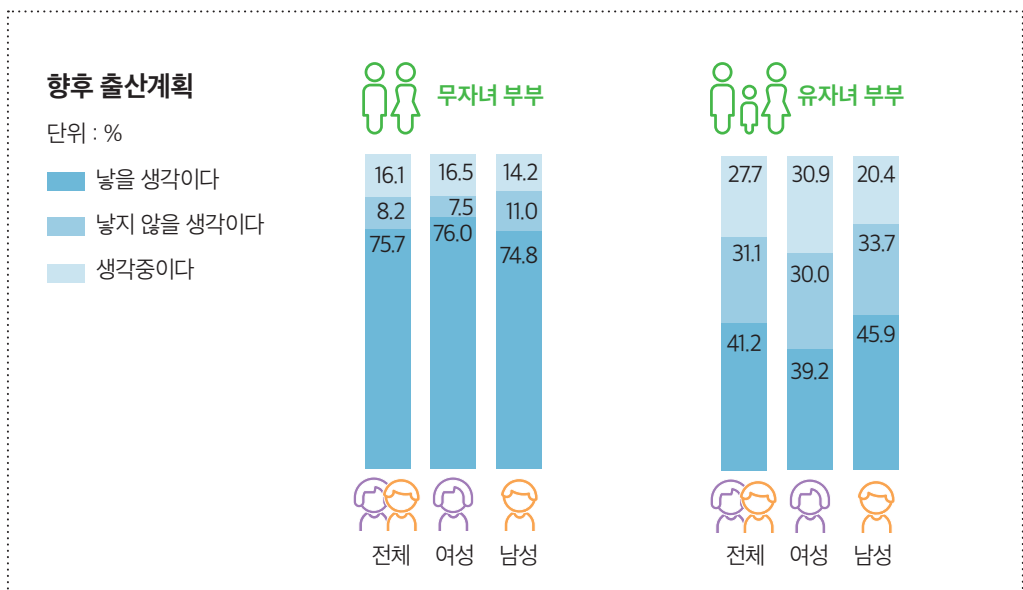
Ⅲ. 출산과 육아

1. 현재 자녀 유무 및 향후 출산 계획

현재 자녀 유무

응답자의 자녀 유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유자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38.8%, 비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66.2%로, 비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역시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부부가 비맞벌이를 선택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³ 현재 직업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45.2%)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4.4%)인 경우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 지위의 안정성은 자녀를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출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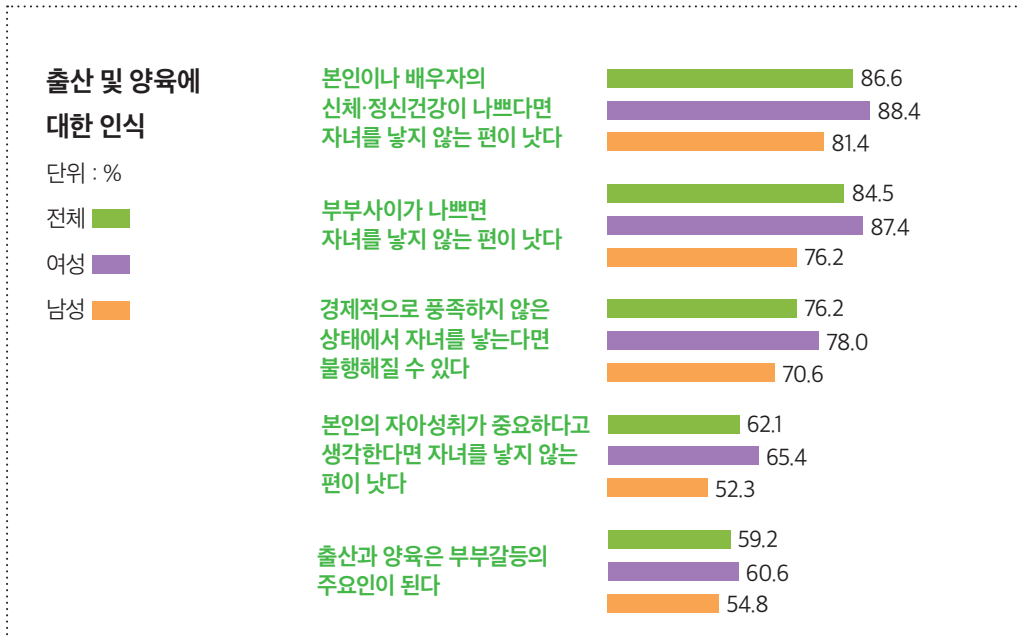
향후 출산 계획을 현재 자녀 유무 및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현재 무자녀 응답자의 75.7%가 향후 '자녀를

3 FGI 분석 결과,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가구 대다수가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맞벌이에서 비맞벌이 부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낳을 생각'이라고 응답하여 무자녀 부부의 상당수는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과 '생각중이다' 라는 응답을 모두 고려하면 20% 이상이 비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자녀 응답자의 향후 출산 계획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생각중이다'는 응답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부부의 경우 출산 계획에서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유자녀 부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거나 출산을 고민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경제활동) 변화를 비롯한 일상의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하고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산 계획에 있어서 유자녀 부부의 여성과 남성 간 인식 차이는 자녀 계획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여성의 의사와 다르게 자녀 출산으로 이어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 따라서 자녀 출산 계획을 둘러싼 부부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겪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출산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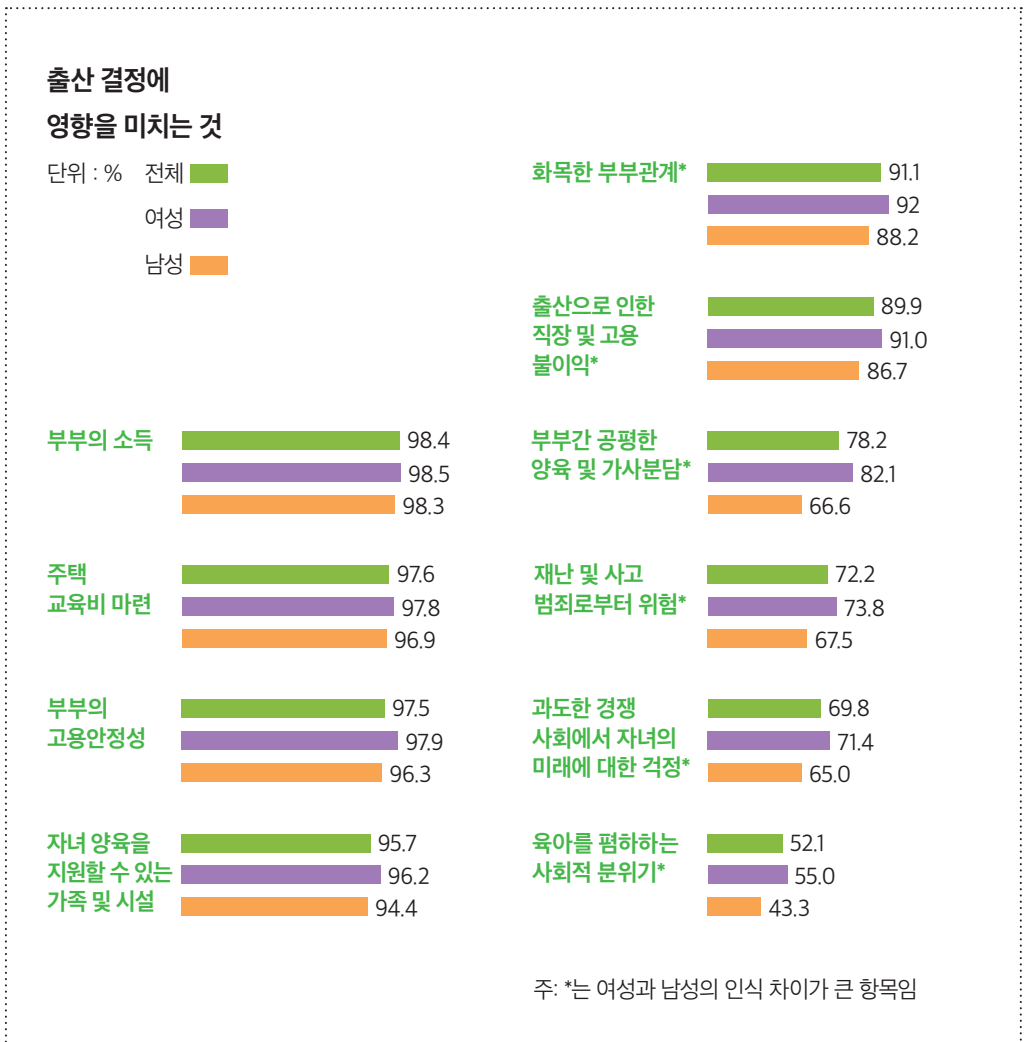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4 실제로 FGI에 참여한 한 무자녀 여성은 출산의향이 없었지만 남편과 시가의 요구에 의해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였다고 이야기함. 임신과 출산 계획이 부부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나 여성의 자기 결정보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신혼부부의 대다수는 자녀 출산에 있어서 부부의 건강과 부부의 화목한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2.1%는 '본인의 자아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편이 낫다'고 나타나, 신혼부부의 상당수는 자녀 출산 및 육아는 부/모의 자아 성취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5개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 부부간 관계, 경제적 조건, 육아와 자아 성취 양립의 문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부 간 갈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본인의 자아 성취가 중요하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여성 65.4%, 남성 52.3%, 13.1%p 차이)로,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과 육아가 본인의 자아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신혼부부가 출산을 결정할 때 부부의 소득(98.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택·교육비 마련(97.6%), 부부의 고용안정성(97.5%),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 가족이나 시설(95.7%)이 높게 나타났다. 즉 출산 결정에 있어서 소득, 주거 및 교육비, 고용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조건과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화목한 부부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다. 출산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한 부부 관계가 형성·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개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 결정과 관련하여 경제적 조건과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화목한 부부 관계, 고용 상 불이익, 부부간 가사 분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의 91%(남성 86.7%)는 출산으로 인한 직장 및 고용 불이익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고용 상 불이익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부부간 공평한 양육 및 가사 분담(여성 82.1%, 남성 66.6%), 육아를 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여성 55%, 남성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독박’으로 대표되는 부부간 불균등한 양육·가사 분담은 여성의 출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육 및 가사 노동의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저평가되고 ‘맘충’이나 ‘노키즈존’처럼 육아(혹은 육아를 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확대되는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문제로 인식되는 동시에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및 시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이고, 35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수가 증가(통계청, 2015)한 것을 보았을 때 30대는 실제 출산과 양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주로 30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신혼부부는 아이 돌봄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직업이 없는 경우, 비맞벌이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육아를 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 자원을 갖지 못할수록 육아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육아가 편하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육아를 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의한 양육자의 물리적·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및 양육자를 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있는 여성 FGI 참여자들은 대체로 임신 및 출산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출산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녀가 없지만 시가와 남편이 원해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의 사례는 여전히 여성의 출산/비출산 결정이 가부장적 가족 문

5 FGI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이나 ‘맘충’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는가 하면 외출 및 공공장소 출입을 꺼려하는 등 실제로 물리적·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 ‘삶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원해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B 저는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저희 집이 3남매인데 남동생, 여동생 지금도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형제의 힘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다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H 2년 지나니까 어른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어졌고. 그 때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먹었어요.



J 제 경우는 딱히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처가 아이를 가지는 걸 많이 원했어요. 제가 낳는 것도 아니고, 낳고 난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어도 낳는 과정 자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갖자고 애길 했거든요.

출산을 고민한 경험이 있거나 비출산을 결정한 이유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일찍이 결정하고 취미와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살고자 한 사례를 제외하고, 여성은 출산 후 커리어의 중단과 배우자와의 갈등이 재발할 것에 대한 염려,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양육 경험, 배우자의 원가족(시댁)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였다.



C 생각이 트일 때부터? 결혼은 해도 애는 안 갖는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A 저희 엄마가 교육열이 높아서 제가 학업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이 교육에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싶어서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D 결혼해서 살면서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안 낳는 쪽으로 기울게 된 데에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은 형님이 시조카가 두 명 있는데, 애기가 생기면서 겪는 모습들을 직접 본 게 원인이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가족의 일원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결혼 후 오히려 비출산을 결정했다는 여성의 응답에서 주목할 부분은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가 비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혼 초기 시가와와의 관계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을 겪었고, 시가의 간섭 하

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생기면 정말로 배우자 원가족(시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특히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결혼을 선택했고 현재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에는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육아를 할 때 원가족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다시 원가족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지나친 교육열과 경쟁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염려, 성장기 부모로부터 경험한 특정한 양육 방식의 강요가 자녀에게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출산에 대한 고민 및 비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출산/비출산 결정을 막론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두려움에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B 결혼 초 싸웠던 게 이제야 해결됐는데 아이로 또 다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까봐 그게 걱정돼요.



A 저희는 갈등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케이스라서.



D 우리가 애를 낳는 순간, 신혼 초에 나타났던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다. 남편도 확고하게 돌아선 상태예요.



H 저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결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했고, 외벌이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갖기 전 출산을 망설인 이유로 남성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아이를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여성들은 이러한 부담과 더불어 육아 과정에서 신혼 초에 겪었던 갈등을 다시 겪을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 그룹 4명 중 3명은 신혼 초기에 이혼을 고려할 만큼 배우자와 큰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고 응답했는데, 임신 및 출산이 당시와 유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는 부부 간 관계가 여성과 남성의 출산계획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E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원했어요...친정, 시댁 도움을 못 받았지만 신랑이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둘째까지도 낳을 수 있

지 않았을까 싶어요...아무래도 첫째 때보다 둘째가 더 제약이 많은 거 같아요. 둘째 때는 첫째를 무조건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자유롭게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J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6-8개월까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H 저는 다행히 회사가 연차나 시간도 재량적도 쓰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 데리고 병원 갈 때도 그렇고. 한 명 더 낳게 되면 두 명 데리고는 혼자서는 못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원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출산 전과 후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육아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꼽았다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아이 돌봄 기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아니더라도 아이양육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면 향후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1) 연령이 높을수록, 2) 자아성취가 중요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출산과 양육은 부부갈등의 주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4) 본인의 주말 가사노동 시간이 길수록 출산의향이 낮았다. 반면 1) 배우자와의 여가를 즐기는 경우, 2)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3)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높았다.

이를 성별과 자녀유무로 나누어 분석하면, 무자녀 여성은 1)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2) '주택 및 교육비 마련'이 출산 결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약했고, 1)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2) 현재 맞벌이를 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1)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시설'이 출산 결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 또한 '출산과 양육이 부부갈등의 주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약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중 육아 시간이 길수록 향후 출산 의향이 강했다. 즉, 무자녀 여성은 현재의 직업 활동,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한편, 유자녀 여성은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부부간 양육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방증한다.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 양육자로서 '독박 육아'로 칭해지는 양육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육아 생활은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육아 및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이 부부 간 부담

및 자녀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출산한 참여자들에게 출산을 앞두고 부모가 되기 위해 수행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임신 시기 역시 결정해야했다.



E 유한킴벌리에서 하는 강의를 많이 들었고 육아서도 많이 봤고요. 뽀뽀뽀 라는 아기가 아팠을 때 대처하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F 엽산같이 먹고. 금주하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도 직장생활 계속하니까 따로 특별히 는 퇴근하고 산전요가 다니고...애기 낳기 전에 한 한달 정도 쉬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부터 막 찾아보고 벼락치기로 공부했어요...저도 시댁과 친정 다 지방(대구)이라 조언을 받을 수 없어서 환경이나 직장에서의 시기도 고려했구요. 이제 육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H 와이프 회사는 출산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회사였어요. 거기서는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지속할 수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사실 불안하잖아요. 육아휴직하고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임신 후에도 배려하지 않는 회사를 보고 결국 그만두게 됐고요.



J (준비했던 건) 마인드컨트롤이죠. 몸이 많이 바뀌니까 짜증내거나 화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토 달지 말고 필요한 건 다 해주자...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H 저는 주로 와이프의 요구에 의해서 신혼부부학교하고 출산학교 다녔는데요, 저는 주로 선배들 중에 가정에 잘하는 선배들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아 많이 얻어 써야지.(육아용품)



I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안이 병병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준비는 와이프가 다하고 있죠.

현재 육아휴직 중인 F씨의 경우 임신 이전에 출산 이후 육아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과 직장에서의 시기 등을 고려하는 등 '육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 이후 임신을 계획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 '엄마가 되는 것'은 임신과 출산 그 자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직장과 육아를 조율하는 과정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육아에 적합하게 직장의 일을 조율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등 출산 이전 커리어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여성들은 출산을 경험한 형제·자매나 지인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거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강의를 듣고 육아서적을 보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면 남성들은 아내가 제안하는 것을 따르거나 아빠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에 그쳤으며, 아내의 출산 과정과 육아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야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들 역시 아내의 노력에 비해 자신의 노력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언급처럼(J씨) 임신과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며 그로 인한 책임 역시 여성에게 훨씬 많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과 가족의 의미



E 출산 전후에 가족 범위가 달라진 거 같진 않아요. 양가의 부모님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긴 해요.



G 저는 워낙 시택에 관심을 안 가져서 출산 전에는 동거하는 느낌이었는데...



F 저는 똑같은 거 같아요. 결혼하면서 오히려 시택 가족들이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건 있었는데 출산이후라고 딱히 변한 게 없는 거 같아요.



J 출산 이후에는 원가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가족을 생각하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원가족을 많이 생각하죠.



H 저는 반대로 원가족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지금 가치관은 내 아내와 아이에게 더 중심을 두게 됐어요.

출산한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범위'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여성들은 출산 전과 이후에도 동일하게 부부와 양가부모님을 가족의 범위로 두었던 한편, 남성들은 이전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 돌봄을 위해 원가족을 더 필요로 하거나,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등 가족의 범위에 대한 재편이 있었다. 가족의 의미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출산을 경험하면서 좀더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

다. 여성 참여자들은 출산 및 양육과정에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응답하였다.



F 저희는 아기 낳은 지 아직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출산이나 육아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 같아요. 전우애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긴 거 같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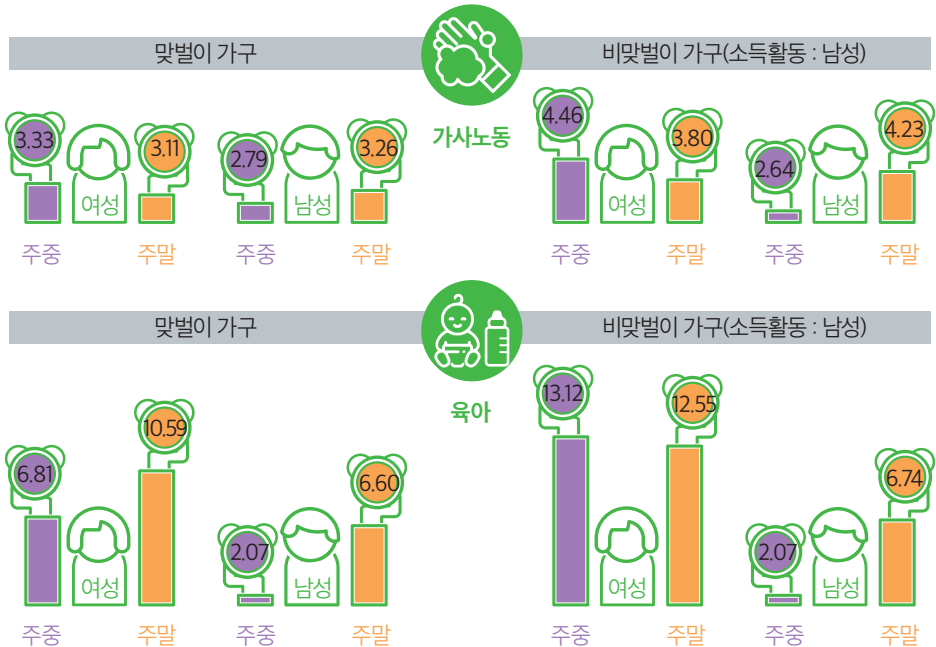
E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고 출근 안하는 날은 무조건 집에서 지내요. 주말엔 아이들 신랑이 다 놀아주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쳐주죠. 제가 우기면 신랑이 쳐주거나 싸웠을 때 감정이 머리끝까지 오지 않게.

3. 가사와 육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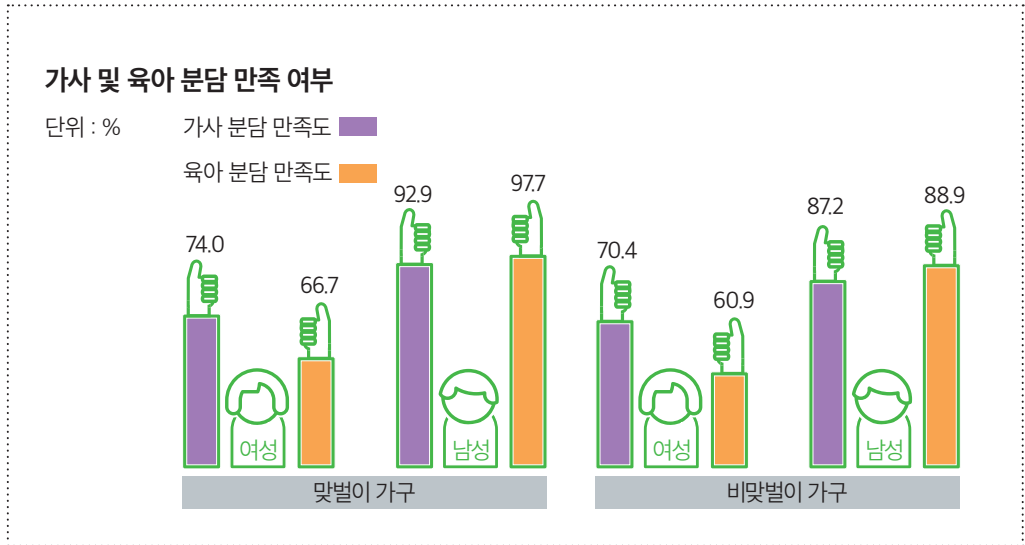
가사 및 육아 부담 현황과 만족도

가사 및 육아 부담 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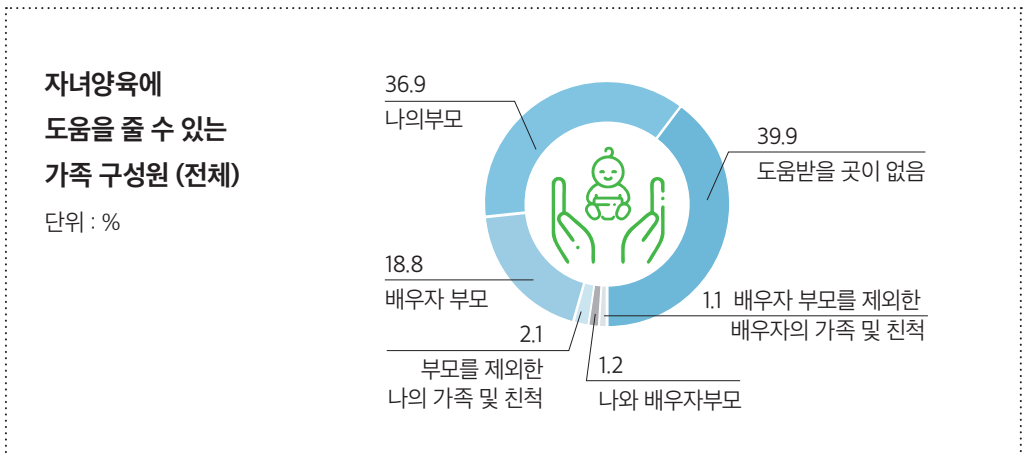


맞벌이 여부와 성별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분담 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주중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주중, 주말 가사 육아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 및 육아 분담 만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여성의 만족 정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비맞벌이 여성은 가사 분담 만족 70.4%, 육아 분담 만족 60.9%로, 가사와 육아 분담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남성의 경우 가사 분담과 육아 분담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9.9%가 ‘도움 받을 곳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상당수의 신혼부부들이 자녀양육 지원의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나의 부모’(36.9%), ‘배우자 부모’(18.8%) 순으로,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였다. 이는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돌봄 시설 및 기관)의 확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FGI 참여자들은 모두 육아를 편하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아이를 낳은 면접자들의 경우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맘충’이라는 말과 ‘노키즈존’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 자질의 문제로 비판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엄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업주부인 E씨의 경우 그 과정에서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꺼려지면서 아이들과 집에만 고립되면서 사회적으로 점점 ‘위축된’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A 일부분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 가열된 현상.



B 마찬가지로예요. 크게 고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거 같아요.



E 결국 개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일부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거 같아요.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G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면 좀 조심하게 되는 거 같아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직 없어서 둘째에 영향은 없는 거 같아요.



F 저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한편 남성의 경우 개인의 자질 문제보다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돌봄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육아를 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성별 간 다른 해석은 여성이 육아의 전담자로서 공공장소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당사자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잘못된 엄마’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 아내가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게 임신부 배려석에서 배려 받지 못한 거였어요. 또 아이를 낳고나서도 아이와 함께인 걸 배려 받지 못하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J 개개인의 차이도 분명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빠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다른 양육자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도 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둘은 좀 힘들어요. 그걸 많이 느껴요.

참여자들은 육아의 가치를 폄하하는 전체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H씨는 회사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 비교적 규율이 자유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정 친화적인 부분이 구비되었다더라도 제도들을 쉽게 사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직장 문화의 분위기 역시 출산과 육아를 방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 사실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된 거 같아요. 가정적인 게 당연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은 특이한 경우가 되니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겐.

이런 분위기는 직장을 다니던 여성들이 출산 후 실제로 겪거나 예상되는 어려움들과도 연관된다. G씨와 F씨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었는데 육아휴직 후 육아와 직장생활 간의 균형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출산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육아는 여성들의 출산 이전 삶에서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들에서 보여지듯이 여성들은 출산 이후 상당수의 시간을 육아에 할애할 수밖에 없으며 직장을 다닐 경우 시/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업주부인 E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G 제 생활이 많이 없다는 것, 아이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게 어려운 거 같고. 제가 10월에 복직인데 복직한 뒤에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살림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하나. 복직한 후가 어려운 거 같아요.



F 애기 초반에 잠 안자고 하면 짜증이 나긴 해도 일단 내려놔죠. 애기 스케줄에 저를 맞춰야겠다. 지금은 다 예빠요. 일단은 복직하고 난 다음에 애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큰 걱정이예요.



E 개인 시간도 없고 자유가 없는 게 너무 싫어요. 무엇보다 싫은 걸 떠나서 제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되니까 억압되는 게 많고 아이에게 표출되는 게 많죠.

위와 같은 현실은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이유와 연결된다. 참여자들은 여성들의 낮은 결혼 만족도, 특히 출산한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대체로 공감하였다.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력 단절, 사회로부터의 고립,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신체적 변화, 하루 종일 양육을 하며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 등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이 여자의 몸을 갈아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D씨의 말처럼, FGI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이 더 많이 할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H씨의 아내는 현재 육아 휴직 중이지만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직장의 분위기가 임신 및 출산을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J씨는 출산 이후 남성들의 삶도 변하기는 하지만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정도이며 실제 변화와 역할들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오는 등 부정적인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D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이 여자의 몸을 갈아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결혼하면 막 연히 아기를 낳겠다고 생각했는데 출산이 과연 의무인가 싫어요.



J 남자는 사실 변하는 거 별로 없는데, 아내는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반응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관계에서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운 게 많이 생긴 거 같아요.



H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본인은 너무 포기한 게 많은 거예요. 남자에 비해서. 직장, 건강 너무 포기한 게 많으니까. 그 원인이 남편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게 된 환경이 되었으니까 손해는 나만 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남자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지켜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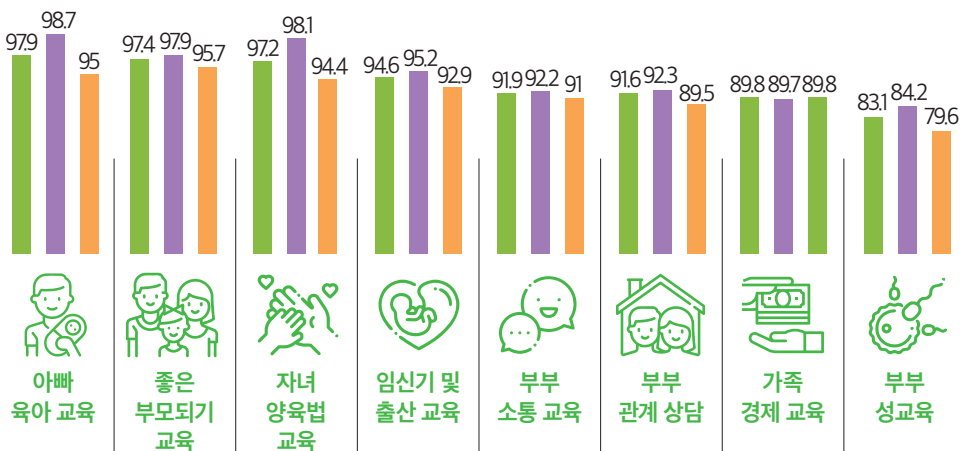
몸부터 시작해서 다 변하니까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몸도 체력도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원인으로 다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선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좀 덜 신다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바뀌는 건 많이 없고 소소하게 즐기는 시간이 없어진 정도죠. 남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울해질 정도는 아니니까.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있어보면 여성들이 이해가가요...(남성의 육아 스트레스는?) 저는 그게 다 과대 평가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건 보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이요. 저는 직업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떠나서도 내 자리에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자존감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육아를 한다고 하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 같아요. 아이만 보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4. 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 및 기존 프로그램 평가

출산·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

출산·자녀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체 ■ 여성 ■ 남성 ■



출산 결정과 자녀 양육 시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매우 도움 될 것이다’와 ‘도움 될 것이다’를 합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부 성교육’을 제외한 일곱 개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약 90%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중 ‘아빠 육아교육’(97.9%), ‘자녀 양육법 교육’(97.2%), ‘좋은 부모되기 교육’(97.4%)과 같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각 프로그램에 대해 출산 결정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에게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프로그램은 ‘아빠 육아 교육’으로 98.7%였으며 남성은 ‘좋은 부모되기 교육’으로 95.7%였다. ‘부부 성교육’에서 여성은 84.4%, 남성은 79.6%로 약 4.8%p 차이를 보여 다른 프로그램보다 성별 간 프로그램 수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경제 교육’에서는 여성은 89.7%, 남성은 89.8%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설문 분석에서 신혼부부들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상황에 맞추어 관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신혼부부학교 참여 경험

신혼부부학교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면접자들은 모두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가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등 장기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남성 참가자들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B (신혼부부 학교 중 성격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성격차이가 있기도 하고, 간극을 좁히는데 도움이 됐어요. 나와 내가 다르고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차이로 인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도움이 됐어요.



H 저는 신혼부부학교 좋았다고 생각한 게 부부 간의 관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점이었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 두 명, 세 명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될까, 해도 안될 거 같아서 두려운데 그래도 막상 낳으니까 너무 예쁘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간의 관계인 거 같아요. 신혼 부부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J 환기가 많이 됐어요. 주변을 봐도 많이 없기도 하고,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막연했는데 신혼부부학교에서 강연을 듣고 나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시각만 조금 바뀌면 그래도 힘든 점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지레 겁먹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아이양육이나 부부 간 관계와 관련한 강의 참석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나 강의 시 아이 돌봄 문제로 인해 강의 참석에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의 참석 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함께 강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 참여자들은 육아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엄마에 비해 적다고 하였다. 엄마들은 임신·출산·육아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등 육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접하기 쉽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아빠 맞춤 육아 정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 아빠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아내를 거친 거기 때문에.



J 아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분야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물건은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아빠들은 아이가 어떻게 커야하고 뭘 배워야 하고, 학습이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육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관계 맺기에 좀 어설피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여성 참여자들은 역시 부부 간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실제로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A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부들끼리 그룹으로 모여 서로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B 주제처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되기 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좋더라고요. 수료를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이 진짜 중요한데. 결혼시장, 웨딩시장 굉장히 크고 많이 알아보지만, 그에 비해 결혼 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공부와 투자는 많이 안하는 편이잖아요.

앞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은 여성보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사전 준비 및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거나 막연해하는 상황이었으며,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와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양육을 수행하는 과정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역시 적극적인 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은 동시에, 대화와 여가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신혼부부의 갈등요인으로 육아문제와 부부간 가사 부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앞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출산·자녀양육 관련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실질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 부담을 비롯하여 자녀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부의 생활 변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IV. 요약 및 함의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신혼부부의 인식은 전통적 통념을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 정상 가족의 유지를 생애에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방식은 실제 신혼부부의 욕구 및 인식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부부 간 갈등 요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활 습관(36.3%)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인 문제(29.6%), 부부 간 가사분담(26.6%),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24.0%), 육아 문제(22.4%) 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여성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2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2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가와의 관계로 인한 신혼부부의 갈등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 해결 방법

대부분 부부간 대화(92.0%)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부부 간 갈등의 주요인으로 제시된 '생활 습관',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 가사 분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등은 단순히 개인 간 차이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부부가 오랜 시간 각자 놓여있던 관습과 문화, 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부 간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부 구성원이 지닌 고정적인 성역할 태도, 가부장적 가족 문화 등을 전제로 한 가족 내 대화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봉합하거나 가려 문제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가족 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신혼부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FGI에서도 부부 간 많은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결혼생활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부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담이나 교육 참석 등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주로 여성에 의해 행해졌는데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성들의 적극적인 의지 역시 필요하다.

결혼생활 만족도

남성(8.10점)이 여성(7.91점)에 비해, 무자녀 응답자(8.11점)가 유자녀 응답자(7.79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자녀보다 유자녀인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왜 낮아지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부부간 대화와 가사노동분담의 중요성

부부 간 많은 대화와 신뢰는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였다.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 분담에 불만족하는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낮았다.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가사노동 분담은 결혼 초기 부부 간 갈등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가사노동분담을 둘러싼 부부 간 갈등은 결혼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전통적 성역할과 가부장적 의식을 기반으로 가족 내 역할이 부여되고 가사노동이 분배되는 상황은 신혼부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부부간 가사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출산 계획

무자녀 부부의 경우 출산계획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유자녀 부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거나 출산을 고민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일상의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하고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출산 계획을 둘러싼 차이가 부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녀 출산 계획을 둘러싼 부부 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겪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출산 결정 시 고려하는 것들

출산을 결정할 때 신혼부부들은 부부의 소득(98.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주택·교육비 마련(97.6%), 부부의 고용안정성(97.5%),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 가족이나 시설(95.7%) 순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즉 출산 결정에 있어서 소득, 주거 및 교육비, 고용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조건과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화목한 부부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다. 출산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화목한 부부

관계가 형성·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FGI 참여자들은 성장기 원가족과의 관계와 양육과정 및 개인이 갖는 가치관에 따라 비/출산계획을 갖게 되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면접자들의 경우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면접자들은 현재 육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출산 및 육아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경력단절, 돌봄 공간의 부족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체감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원한 적이 있더라도 부부 간 관계 및 타인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경우 아이 갖기를 재고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신혼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게 된 원가족들 역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와 여가를 많이 보내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반면, 자아성취가 중요한 경우, 출산과 양육을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주말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낮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유자녀 여성의 경우 부부 간 양육 분담과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방증한다.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 양육자로서 ‘독박 육아’로 칭해지는 양육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육아 생활은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육아 및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이 부부 간 분담 및 자녀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사 및 육아분담

남성들의 가사노동 및 육아 참여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가정의 일(특히 요리와 육아)은 여성이 주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인터뷰 참여자들은 출산 후에 엄마가 아빠보다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며, 가사와 육아에서 여전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후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가 부부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39.9%의 응답자가 '도움 받을 곳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상당수의 신혼부부들이 자녀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돌봄 시설 및 기관)이 확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시설'에 대한 고려가 이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저출생 현상을 문제로 삼고 국가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실제로 신혼부부들은 크게는 육아를 저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더 가깝게는 육아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직장문화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울 때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육아를 저평가하고 혐오하는 일부 사회 분위기는(맘충, 노키즈 존)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물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전반적인 직장 문화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아내의 고충과 어려움을 인지하고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려고 하는 등 부부 간 관계를 새로 재편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출산을 선택하거나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형성 또한 필요하다.

출산 및 양육 관련 프로그램 수요

신혼부부들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상황에 맞추어 관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사전 준비 및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와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양육을 수행하는 과정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남성 역시 적극적인 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연구 기관

주관기관 : 서울YWCA, 유한킴벌리

조사기관 : 마이크로 엠브레인

연구원

문수연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송리라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이수연 (유한킴벌리)

김예리 (서울YWCA)

황경희 (서울YWCA)

연구 자문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소통하는 부부행복 문화

201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결과보고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의
기록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 그리고 또 10년

2009년 저출생의 해법 찾기 시작 “생명사랑”과 “소통”에 주목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2009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신혼부부 소통학교(이후 신혼부부학교로 표기)를 시작했다. 그 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었고, 낮은 출산율로 국가적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막대한 양육 비용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에 주목했다.

유한킴벌리는 사회책임의 일환으로 저출산의 해법을 모색하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저출생의 원인에는 경제적 이유 못지않게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개의 포커스 그룹 중 결혼 6개월 이하의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그룹의 인터뷰 결과, 저출생의 기저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행복하지 않은 부부관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한킴벌리는 생명사랑의 가치를 중심으로 여성공동체운동을 이끌어온 서울YWCA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저출생에 대한 기존 해법과 달리,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신혼부부들이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소통을 통해 건강한 부모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사랑 신혼부부 소통학교’를 만든 취지이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가족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한 신혼부부들의 갈등'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일중심의 삶을 살며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웠던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상처 및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2,000여명의 신혼부부들 참여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저출생 시대에 생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생명사랑'이라는 가치에 주목했다. '생명사랑'에는 부부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생명감수성'을 회복할 때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았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받아들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부부간 소통능력을 높이는 '특강'과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소시오드라마워크숍'이다. 특히 신혼부부학교의 상징적 프로그램인 '소시오드라마워크숍'은 지난 10년 동안 심리적 접근방식을 통해 신혼부부들 스스로가 갈등의 실체를 발견하고 극복하도록 도왔다. 부부갈등의 해결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매회 심리극의 주인공이 되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에 소시오드라마에 참여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원가족 관계(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상처가 부부간 대화단절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순환고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중심의 과로사회를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소시오드라마워크숍’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이 무대에 올라 심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부부관계의 아픔을 드러내고 관계회복의 솔루션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화해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가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행복한 부부관계가 저출생 문제의 해법임을 강조해 온지 10년이 되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출산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을 개인의 행복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 방향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신혼부부학교 10주년을 맞아 『저출생 원인과 과제에 관한 신혼부부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 조사에서도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향은 평등한 가족문화에 달려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 여가를 많이 보내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고, 반면 출산과 양육을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출산의향이 낮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차별적인 가족문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고정관념,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고용환경, 남성과의 임금격차 등이 지속되면 다음 세대들은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이다. 결혼, 자녀에 관한 가족관도 이미 전통적 통념을 벗어나고 있다. 결

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비혼자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에 대한 비난은 세대 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다. 인구증가가 곧 국가발전이자 경제발전이라는 발전주의 모델의 슬로건 역시 신혼부부에게 아무런 울림도 줄 수 없다.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또 1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3가지 다짐을 한다.

첫째, 신혼부부들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며 서로를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펼치겠다.

둘째,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행복을 더 많은 신혼부부들과 나누겠다.

셋째,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요인들이 더 이상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날까지 성평등한 가족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풀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당사자의 욕구를 면밀히 담아낸 정책으로, 기업과 가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평등한 문화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대변자로 사회의 각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협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명사랑 신혼부부 소통학교는 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이 협업하여 저출생의 대안모색을 통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시사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모델이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숫자로 보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

사업 연차 수



23기

프로그램 기수



159시간

10년간 프로그램
진행 시간

1,903커플

3,806명

프로그램 지원자 수



998커플

1,996명

참여자 수



373명

스텝 수



107명

강사 수



93.2%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매우 만족 49.9%

만족 43.3%



92.4%

부부간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 49.4%

도움 43%



116명

출산 계획이 없었던 155명 중

프로그램 참여 후,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200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첫 걸음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저출생 시대,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 갈 신혼부부들이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부모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제1기

신혼부부들,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다

2009. 7. 11 | 문학의집·서울
27커플 참여

- 10:00 [생명특강]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_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
- 13:00 [특별활동] 라인댄스배우기
- 13:30 [특강] 기쁨의 만남,
축복의 설렘 _선/가수
- 14:30 애니어그램 성격유형
분석 워크숍 '맹인과 달팽이'
김순자/한국애니어그램학회
이사

제2기

신혼부부들, 유쾌한 소통을 시작하다

2009. 7. 11 | 문학의집·서울
27커플 참여

- 10:30 '부부' 소통자리
_윤인순/드라마렉처 팀장
- 12:30 천연염색 커플티만들기
_이준서 오그닷 디자이너
- 14:00 지구적 관점에서 본
생태적 '생명사랑'
_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부부성격 유형검사 워크숍



부부의사소통 워크숍 (드라마렉처 윤인순팀)



라인댄스



천연염색 커플티 만들기

“ 이번 기회로 남편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부부소통, 드라마렉처를 통해 임상의 사례를 들으며 서로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원 | 조아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 국가가 된 한국은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균 출산율이 '1'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2018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 이상 어린이들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 시대 젊은 부부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자녀 낳기를 포기한 채 이 세상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후손을 남기고 책임감있게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의 역할이다.



전기수

기쁨의 만남, 축복의 설렘

아이를 키우다보면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음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했던 말을 하음이가 둘째 하랑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둘일 때보다 셋일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간다. 1년동안 모은 2천만원을 하음이 돌잔치 대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하면서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교육비, 커리어, 신혼의 누림 때문에 아이 갖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부모의 수고로 인해 우리가 존재함을 생각하고,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낳아 키우는 일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20 10

생명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다

첫 해 진행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지구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서로 소통하며 자신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관계가 될 때 부모로서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10년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소시오드라마와 감정코칭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기는 소시오드라마를 중심으로, 4기는 가트맨식 부부감정코치 워크숍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제3기

신혼부부, 유쾌한 소통법을 배우다

2010. 9. 26 | 해치홀소극장
49커플 참여

제4기

행복한 부모되기 준비 시작하다

2010. 10. 30
서울YWCA 강당·마루
39커플 참여

2010. 11. 06
서울YWCA 강당·마루
29커플 참여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가트맨식 부부감정코치 워크숍



가트맨식 부부감정코치 워크숍

“우리와 비슷한 부부들을 보며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아이의 행복을 위한 지식 쌓기가 아니고 우리 부부 각각 행복해져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태어날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고 행복한 아이로 살 수 있게 키우겠습니다.”

“평상시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들과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돌아켜 보고 반성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교육을 심도있게 받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해 들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를 알 수 있어 그런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서로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계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별자리시퀀스의 큐연구소장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혼 등의 부부문제들은 부부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다. 역할극은 부부로 하여금 서로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노력과 관심인데 그것을 잘 모르거나 간과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입장을 바꿔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시오드라마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탐구』*



최성애 HD기족클리닉 마니

싸움의 내용보다 싸우는 방식이 중요하다

출산 후 첫 3년 동안 67%의 부부에서 대화와 감소하고, 적대감이 증가하며 사이가 급속히 나빠진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부모의 적대적인 관계는 아이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생활이 힘든 것은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싸움의 내용보다 싸우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일상에서도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아닌 호감과 존중으로, 다가가는 대화로 관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가트맨식 부부감정코치 워크숍 『행복한 부부감정코치』*

20 11

행복한 부모되기를 배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다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는 열쇠는 건강한 의사소통이라는 믿음으로 부부 의사소통기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실제적인 대화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가족의 비전을 세우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와 종례를 비롯해서 교장, 학생주임 등의 역할분담과 반장선출 등의 장치로 신혼부부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의 콘셉트를 한층 살렸습니다.

제5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1. 6. 18 | 서울YWCA
29커플 참여

- 10:00 1교시 / 행복한 부부의 우호감 증진 관계법
_ 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 13:00 2교시 / 행복한 부모를 위한 갈등관리와 행복유산만들기
_ 김숙기/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 14:30 3교시 / 연극관람 _ 권혁우팀
- 15:00 4교시 / 소시오드라마워크숍 _ 김영한/별자리심리연구소 소장

제6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1. 6. 25 | 서울YWCA
37커플 참여



부부 의사소통교육



부부 의사소통교육

“앞아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참여하며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게 좋았습니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개선을 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까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대화기술을 알게 되서 좋았고, 참석한 자체만으로 뜻 깊고 제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목표로 삼으며 살지만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배우자에 대해 더 존중하고 친밀감이 생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건강기 나무가 중심이었던
영국부모들의 이야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라

1인칭 화법을 사용하여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법을 서로 연습하여 익혀야 한다.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비전선언문도 작성해보자.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의 다짐이 새겨진 비전선언문은 신희가정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2012

막힌 관계를 뚫는 소통학교

매년 참가신청이 쇄도하는 신혼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가 우리부부에게 왜 필요한지, 사연의 절절함으로 수많은 신청부부 중 참여 부부를 선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낸 한 부부는 '남편이 아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 남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온 신혼부부들은 순간순간 울고 웃으며 막힌 관계를 해결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2012년 신혼부부학교는 부부의사소통워크숍과 소시오드라마, 그리고 '책의 노래 서울'이 신혼부부를 위해 만든 북콘서트로 채워졌습니다.

제7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2. 6. 23 | 서울YWCA
37커플 참여

10:00 1교시 / 행복한 결혼의 기초 만들기_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13:00 2교시 /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의사소통
_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14:30 3교시 / 북콘서트 책의 노래 서울
15:00 4교시 / 소시오드라마워크숍. 김영한 별자리심리연구소 소장

제8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2. 6. 30 | 서울YWCA
51커플 참여



참가자소통시간(전교회장선거)



부부대화 방법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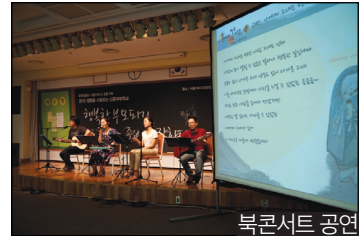
66 신혼부부학교 7기를

다녀왔어요.
부부사이에 신뢰가 최고라는 말, 특히 김숙기 선생님의 말씀 중에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마음 한 구석의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꿈틀 거리는 느낌이랄까? 나도 모르게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담긴 눈물을 알각 쏟아냈죠. 그 한마디의 힘이 대단하던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또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이 되어 싸움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 일? 다른 때 같았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텐데 배운걸 해보겠다고 남편이 저를

앞히더러구요.
그러더니 “그랬어?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졌고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부부로서의 생활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실습현장에 뛰어드는 기분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다시 하나하나 인생과 결혼생활을 익혀가죠. 그러나 이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준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상쾌함과 숨이 조여올 정도로 메말랐던 땅에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북콘서트 공연



김숙기 | 배우기 중심의 배움
연극배움터 | 배우기 | 배우기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여행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성장과정의 상처가 있는데, 결혼 후 본인의 채워지지 않은 상처를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관계 문제의 시작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표면의 문제가 아닌 나의 상처를 알아가고 배우자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해결책이다.

20 13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소통훈련의 힘

5년차를 맞은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는 특강과 소시오드라마워크숍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보다, 신혼부부들이 대화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였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그랬구나' 대화법은, 신혼부부학교를 졸업한 부부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며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고, 일회성 교육일지라도 관계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제9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3. 6. 22
서울YWCA 대강당, 마루
52커플 참여

10:00 1교시 / 행복한 결혼의 기초 만들기_ 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13:00 2교시 / 북콘서트_ 책의 노래 서울
13:30 3교시 / 소시오 드라마_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 연구소장
16:00 4교시 /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워크숍_ 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제10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3. 6. 29
서울YWCA 대강당, 마루
50커플 참여



'아하 그랬구나' 대화법 워크숍



부부관계 증진 워크숍

👄 김숙기 원장님의 강의처럼 위기를 낮추기보다 행복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처럼 오늘부터 좀 더 진실된 행복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학교 졸업 후 이렇게 와 닿는 교육은 처음이야" 부부학교에 다녀온 신랑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구요. "뭔가 중요하거나 감동이 있는 일은 실제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이번 수업이 그랬어. 무척 길게 느껴져." 신혼부부학교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내게 신랑이 공을 건네며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라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곤해요. 그렇게 마음만 읽어주는데도 충분히 사랑을 받는 느낌이에요. 🌟



김숙기 원장님 강의 모습

공감의 마법으로 갈등 풀기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부부는 서로 손을 마주잡고 어떤 말을 해도 공감하는 반응을 하기로 약속한다. 부부관계에서 마음을 어지럽혔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1인칭으로 전달한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속이 상했어요.’ 이때 상대는 판단, 평가, 비난, 공격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방어하고픈 마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격양된 감정이 스르르 풀어지고, 싸움이 아닌 해결로 나아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20 14

우리는 이 땅위에 생명을 키우는 봄비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키워드인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특강과 살롱극, 워크숍, 소시오드라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부부 사이를 영순위로 생각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자신이 원하는 사랑법과 행복한 부모의 조건을 직접 적어보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아 '아름다운 생명사랑 실천가정 비전문'도 작성하며 배움이 온전히 부부의 것이 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관계 증진 워크숍



실천가정 비전문 쓰기



11기 단체사진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제11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4. 6. 21
서울YWCA 대강당, 마루
49커플 참여

10:30 1교시 [특강] 유쾌한 소통과 공감 만들기_한성열 고려대심리학과교수
13:00 2교시 / 살롱극 '키스_플라잉트리'
13:30 3교시 / 소시오드라마워크숍_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 연구소장
16:10 4교시 /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워크숍_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장

제12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2014. 6. 28
서울YWCA 대강당, 마루
51커플 참여

“우리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고민이나 상황들을 다른 부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수업 내내 우리와 함께했던 교재가 있는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도 적어보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마음에 새길 말들을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습니다.”



수업시간에 남편과 함께

서로에게 좋은 대화상대가 되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 깨달음이 느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상대가 감성대화를 원할 땐 사실대화를 하지 말 것,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머리를 떼어놓고 따뜻한 가슴만 가지고 들어갈 것, 서로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가정을 상담소(相談所)이자 상담소(相談笑)로 만들 것. 신혼 부부들은 열심히 노트에 적어가며 다짐을 새로이 했다.



본인역시

살롱극 ‘키스’

동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맺어진다. 결혼은 행복만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첫 발일까? 살롱극 ‘키스’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작은 오해로 갈등의 골을 만들어 간다.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형편없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인지 인정하고 이해할 때, 새로운 소통의 물꼬가 트인다.

20 15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다

한 집에 사는 부부, 얼마나 교감하고 있을까?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교감하며 첫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뻘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머리가 아닌 마음의 대화를 다짐하는 부부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솟아납니다.

제13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2015. 6. 20
서울YWCA 대강당, 마루
37커플 참여

10:30 1교시 / 유쾌한 소통 특강. 방대옥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13:00 2교시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 연구소장
13:30 3교시 / 부부 교감을 위한 체험활동

제14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2015. 6. 27
서울YWCA 대강당, 마루
47커플 참여



특강



부부마사지 체험활동



액자만들기 체험활동



수료식

“ 내가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신랑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듯, 신랑도
나에게 딱 맞출 수 없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신랑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지내야겠습니다. ”

“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요.
강의를 들으며 ‘내가 더 잘
이해해야겠구나’라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사랑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미움에 비례한다.’ ‘머리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대화를 하라.’ 오늘 들은
말들을 마음에 심고,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로 서로 약속하며
돌아왔습니다. ”

“ 배우자의 자유를 허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야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 서로
계속 노력해야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
심리극으로 통해 본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



방대옥 대표이사이신 방대옥 대표이사의 모습입니다.

속 시원하게 소통하는 쿨~한 부부되기

방대옥 대표가 전하는 속 시원하게 소통하는 쿨~한 부부되기 비법! 방대옥 대표님은 본인의 가족의 이야기로 강연을 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한다. “처음을 기억하고, 잘 듣고, 비교하지 말 것” 행복한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이다. 모두를 집중시키는 방대옥 대표님의 강의에 눈과 귀를 뚫 수 없는 시간이었다.



부부 교감을 위한 체험활동 모습입니다.

부부 교감을 위한 체험활동

부부가 함께 마사지도 해주고, 요가도 함께 배우며 서로 교감하는 시간. 여가져기서 “에고고~” 곡소리와 함께, “까르르~”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함께 나무액자를 만들며 오늘의 특강과 워크숍에서 느꼈던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힘들었던 몸을 풀고, 배웠던 것을 연습해보며 신혼부부학교를 마무리 한다.

20 16

소통, 그리고 소통이 답이다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회자 최광기대표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아내와 남편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함께 소통하며 부부생활과 생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특강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인문학적으로 통찰해보았습니다. 또한 공감, 연민, 기대 등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맘껏 풀어내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통의 시간



토크콘서트



소시오드라마



부부소통특강

제15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2016. 6. 18
서울YWCA 대강당, 마루
43커플 참여

09:30 1교시 / 토크콘서트 최광기의 '톡톡톡' 최광기 토크컨설팅대표
12:30 2교시 /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_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 연구소장
14:40 3교시 / 속시원하게 소통하는 쿨한 부부되기
_방대욱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제16기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2016. 6. 25
서울YWCA 대강당, 마루
47커플 참여

“ 남편이 제게 직접 ‘진짜 남편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 표현에 미숙한 저희였는데,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 고백하도록 하고, 또 방법도 알려주니 너무 좋았어요.”

“ 대부분의 부부들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또 해결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 부부가 대화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 부부의 사소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내면속의 자아를 꺼내어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몰랐던 서로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상담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적용해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한인협회·서울YWCA 공동 주최
2016 생명을 사랑하는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행복한 부모되기,
준비시작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신혼부부 아리보, 담은 참여 바랍니다!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행복한 부부되기(소시오드라마), 소품극강〉

제 1차 2016.6.18(토) 9:00 ~ 16:30
제 2차 2016.6.25(토) 9:00 ~ 16:30

주최: 유한인협회, 서울YWCA
주최: 유한인협회, 서울YWCA
주최: 유한인협회, 서울YWCA



최광기 토크콘서트대표

최광기의 ‘톡톡톡’

나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에게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토크콘서트를 이끄는 결혼 선배 최광기 MC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혼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사랑의 기쁨으로 찾아올 새 생명도 기대해보는 시간이었다.



김영환 별자리소시오드라마극연극연구소장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서로의 마음을 꺼내 놓는 심리극 시간.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낸다. 무대에 나온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다 보면 내 배우자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당신이 그랬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니 더욱 사랑하게 된다. “잘 부탁해요. 저도 더 많이 이해할게요”

20
17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2017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종일프로그램의 형식을 탈피하여 특강 단위로의 운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를 주제로, 행복한 부부와 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의 '소통'을 더욱 강조하였고, 신혼부부의 소통을 도울 새롭고 다양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신혼부부들의 강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홍보물을 통해 신혼부부학교의 변화를 강조했고, 2년 이내의 신혼부부였던 기존의 참여대상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제17기

육아빠와 부모준비

2017. 9. 1
서울YWCA 대강당
29커플 참여

제18기

애니어그램으로 통하다

2017. 9. 2
서울YWCA 대강당
49커플 참여

제19기

김지윤의 부부소통특강

2017. 9. 8
서울YWCA 마루
45커플 참여

제20기

소시오 드라마 워크숍

2017. 9. 8
서울YWCA 마루
21커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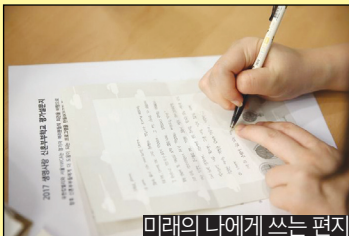
18기 단체사진



애니어그램으로 통하다



커플사진촬영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애니어그램으로 통하다



포토제닉 시상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우리의 다짐액자 만들기



소시오드라마워크숍

HYCP리더로 나오세요! 인생을 바꾸는 습관, 습관입니다.

- “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가 중요하다는 뻔하지만 잊고 살던 진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 “ 우리가 서로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된 강의. ”
- “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노동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어야 한다는 말에 가슴에 새겨서 나의 동지와 험난한 세상 잘 싸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
- “ 그간의 두 달 남짓한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아 그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충격이 뇌리를 스쳤고, 동시에 와이프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 “ 이 강의로 '아이를 낳아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마주할 부모라는 이름이 마냥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부부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
- “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곧 다가올 나의 미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아기가 세상밖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
- “ 결혼과 동시에 아기를 가져서 급격히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1년 뒤에는 셋이서 함께 할 모습들을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몽클해지고요.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나에게 썼습니다. ”
- “ 부모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먼저 경험한 유경험자로서 앞으로의 변화들을 알려주어서,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가 중요하다는 뻔하지만 잊고 살던 진리



정우열 강사님 강의 모습

육아에 한창인 엄마들이라면 책이나 칼럼으로 한번쯤 접해보았을 ‘육아빠’ 정우열 원장이 첫 강의를 열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육아는 엄마의 몫, ‘엄마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깬 아빠육아의 모델로서, 신혼부부들이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깊었다.

우리가 서로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함을



윤태익 연극대학교 교수

애니그램을 통해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유형을 분석해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형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윤태익교수는, 서로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말했다.

공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강의 말미,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 속에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도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강당. 마음을 통하는 진정한 소통의 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김지윤 USTOR중요연예연구사전

결혼 전 후 달라진 부부관계를 통찰하고 남녀의 다름을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젊은 청년들의 연애멘토 김지윤 소장의 재미있는 입담과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공감되는 조언은 신혼부부들에게 연애시절의 로맨스를 새롭게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김명진 별자리시화심리극연구사전

남편에게 한 번도 서운하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비로소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찰하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며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부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2018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2018년은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입니다. 생명사랑신혼부부학교는 10년 간 약 2천여 명의 신혼부부들이 관계를 통찰하고, 소통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선택하도록 도와왔습니다. 2018년은 신혼부부학교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들이 소통으로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1기

성격유형검사로 부부관계 파헤치기 '아는 부부'

2018. 9. 1
서울YWCA 대강당
55커피 참여

10:30 [특강] 성격유형검사로
부부관계 파헤치기
'아는 부부'
_ 윤태익 인하대 외래교수
12:30 눈 마주쳐 대화하기

제22기

우리부부 소통하고 있습니까?

2018. 9. 1
서울YWCA 대강당
44커피 참여

14:30 우리부부 소통하고 있습니까?
_ 박재연 리플러스인간
연구소장
16:30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제23기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2018. 9. 1
서울YWCA 대강당
55커피 참여

13:00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기념활동
13:30 인지심리학으로 푸는 부부소통의
기술 '그 여자 그 남자'
_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15:00 [워크숍] 소시오드라마로
부부갈등의 실체를 보다
'부부소통극장'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 연구소장



단체사진



참기자소통



성격유형검사로 부부관계 파헤치기



인지심리학으로 푸는 부부소통



커플사진 촬영



1년 후 나에게 편지쓰기



환영인사 (최규복 사장)



부부소통극장

“ 강의 내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많았고 집중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눈으로 대화하는 시간. 눈을 마주치자마자 강사님의 말씀이 우리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눈물이 주룩주룩... ”

“ 그동안 남편을 내 삶의 방식, 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된 시간! ”

“ 윤태익 교수님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좋은 말들!

-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다'
- '서로가 다르다고 틀린건 아니잖아!'
-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인격은 바꿀 수 있다!'
- '부부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보태는 것이다' ”

“ 무대 위 부부의 모습에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강의, 그들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씩은 투영되어 있었고, 그러한 공감대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

“ 평소엔 사이좋은 우리지만 가끔 부딪힐 때 마다 적절한 소통 방법을 몰라 답답했었습니다. 오늘 많은 신혼부부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위안을 얻었고, 나의 모습을 다시 되짚어보고 나와 다른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연극인 연극대학교 교수 윤태익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윤태익 교수의 명강의가 펼쳐졌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유형을 분석해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리액션’의 중요성과 ‘다른 것이 틀린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강의 말미,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 속에 눈을 마주쳤다.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소통의 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강사님의 말씀이 우리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눈물이 주룩주룩

내 삶의 방식, 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던 나를
반성하게 된 시간



비제연 리틀리츠 인간관계연구소
장주인 강사님

부부가 주고받는 가지 돌친 말에는 '자동적 생각'이 작동한다. 부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동적 생각'이 펼쳐진다. 자동적 생각은 판단하기, 비난하기, 강요하기, 비교하기, 당연시하기, 합리화하기의 6단계로 넘어간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졌던 자동적 생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소통 방법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는 강의였다.



김경인 이주대리점 심리학과 교수
수업 강사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지심리학을 통해 소통의 기술을 배워 보았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위치에 따라 뇌는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돌아온 날, 우리의 뇌는 누군가에게 칼을 맞아 중환자가 된 상태와 똑같이 인지한다. 밖에서 칼을 맞고 온 배우자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강의를 통해, '아, 그때 당신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깨달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김영환 별자리시퀀스인간관계연구소
장주인 강사님

머뭇거리던 신혼부부는 결국 무대 위로 올라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욕하는 남편과 짜증내는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다. 소시오드라마를 체험하며, 그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첫째 커플을 지켜보고, 우리도 하겠다고 손을 든 두 번째 커플. 매번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는 시어머니가 버거운 아내와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은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 놓고 서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부부들의 모습에 희망이 서려있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첫 걸음

2009



우리는
오늘도
소통으로

더
행복
해집니다

1기



2기



생명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다



행복한 부모되기를 배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다

2010

2011

3기



5기



4기



6기





막힌 관계를 뚫는
소통학교

2012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소통훈련의 힘

2013



7기



9기



8기



10기





우리는 이 땅위에 생명을 키우는
봄비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14

11기



12기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다

2015

13기



14기



소통,
그리고 소통이 답이다

2016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2017

15기



17기



16기



18기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년의 완성

2018



19기



21기



20기



22기



23기



소통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2019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10주년
결과보고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함께한 강사진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김숙기 나우미가족상담센터 센터장
- 김순자 한국애니어그램학회 이사
-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 소장
- 김지윤 USTORY&좋은연애연구소 소장
- 박재연 리플러스인간연구소 소장
-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 선 가수
- 윤인순 드라마렉처 팀장
- 윤탈익 인하대학교 교수
- 정우열 생각과느낌의원 원장
-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 최성애 HD가족클리닉 박사
-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 한성열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10년,
그리고 또 10년

소통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유한김벌리는 1970년 3월
창립하였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위생용품업체중
하나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유한김벌리'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로 국내
주요시장에서 가장 사랑 받는
생활혁신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30년간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지속적인
숲 환경 활동뿐 아니라, 여성과
시니어를 위한 사회책임활동
등도 함께 실천하며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슬로건으로 여성들의 힘으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평등운동** | 성평등미디어모니터링,
젠더거버넌스사업,
기독교여성주의운동, 미안마
카렌주 분쟁지역 성평등
앙트러프러너십 프로젝트
- 청소년운동** | 청소년-대학생-청년Y 운영,
청소년대안학교 운영
- 탈핵생명운동** | 소비자운동, 재생에너지운동,
탈핵운동, 친환경먹거리운동
- 평화통일운동** | 대학생-청년 평화캠프,
통일진로교육, DMZ 평화행진
- 돌봄정의운동** | 서울돌봄과살림 운영

육아를 위한 지식을 쌓는 것 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일깨워 준 생명사랑 신혼부부 학교.
우리는 오늘도 소통으로 더 행복해집니다.



UN SDGs(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와 서울YWCA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사업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등 3가지 목표의 달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